

#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채용 시작

고교 실습생 경력자 64명 포함 95명 … 노조 “채용 규모 더 늘려라”

지역 구직자들의 초기의 관심사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사원 채용이 시작됐다.

기아차는 23일 광주·소하리·화성 등 전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담당할 생산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광주공장 95명을 비롯해 소하리·화성 등 전 공장에서 총 268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공장은 고교 현장 실습생 경력자 64명이 포함됐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기아차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recruit.kia.co.kr>)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에 병여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및 신체검사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서류전형 결과를 3월 중 채용포털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공장의 생산직 채용은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내년까지 국내 모든 공장의 근무형태를 주야2교대제에서 주간2교대제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장은 내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62만대로 늘릴 계획이어서 대규모 인력채용이 기대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현장에서의 품질 확보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진다”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기아차

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노조 광주지회는 “이번 생산직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다”며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퇴직 등 자연 감소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133명은 충원돼야 한다”며 “지부 차원에서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신용카드 수수료율 자영업자와 협의

### 여신금융업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한다.

2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후 형 여신금융협회장과 협계 1위인 신한카드, 이재우 사장이 최근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자영업 단체장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 사장들도 이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종소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최근 확정한 것도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 됐다. 오호석 회장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카드수수료율 체계 용역을 토대로 내달 공청회를 열고 내부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 행남자기 총괄사장에 김유석씨

김유석(41·사진) 행남자기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23일 취임했다. 김 신임 총괄사는 본사이나 전용 식사를 생산하는 계열사(주)모디의 대표이사 사장도 함께 맡는다.

김 총괄사는 김용주 회장의 장남으로, 증조부인 창업자 김창훈 초대 회장, 조부인 김준영 2대 회장, 부친인 김 회장에 이어 4대째 기업을 이어왔다.

김 총괄사는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유학 후 정보기술(IT) 분야 벤처기업을 2년 동안 경

영하다 2004년 3월 행남자기 입사해 기획실 이사·마케팅 본부장(상무)·국내 사업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쳤다.

한편, 행남자기는 김 회장의 동생인 김태성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을 사장으로, 전문경영인인 노희웅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노희웅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